

#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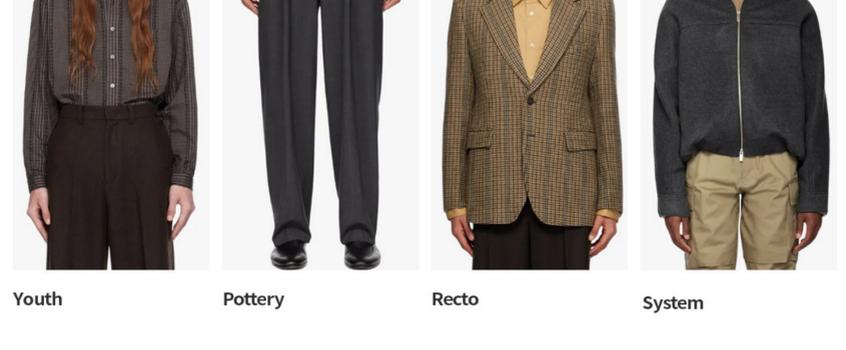
## FASHION 화려한 체리 컬러와 물방울 · 리본 디테일 포인트 2024년 유행할 패션 트렌드는? (1)

영국 BBC가 2024년 S/S 컬렉션을 바탕으로 주요 트렌드 8가지 키워드를 꼽았다. '생로랑', '발랑', '언더커버', '버버리', '구찌', '샤넬' 등의 여성복 컬렉션을 분석해 스폴카 도트 (polka dot, 물방울 무늬) △눈꽃무늬 △체리 레드 △금속같은 소재 스니트 소재 △나비 모양과 리본 △순삭형 스터업이 주를 이루며, 중고 및 지속가능한 소재 등 총 8개 패션 트렌드를 제안했다. BBC는 지난해 패션위크에서 물방울 무늬 제품이 총 1,248만 7,396개에 달할 만큼 올해 여러 아이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복잡하지

만 아름다운 눈꽃무늬가 트렌드 패턴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F/W 파리 패션위크에는 대형 레이싱, 브로더리 앵글레이스를 더한 컬렉션이 눈에 띄었다. 소재는 반짝이는 금속같은 소재를 활용한 드레스와 슈트가 등장했는데 패션 플랫폼 '스타일캐스터'는 부드러운 촉을 위해 메탈릭 골드 데님, 가죽 소재와 매칭해 사용할 것 같았다. 또 니트 소재는 1년 내내 유행할 소재로 W매거진과 패션 플랫폼 '후 핫 웨어'는 가디건, 페이얼무늬 니트, 수놓은 가디건 등을 패턴으로 꼽았다.

다. 컬렉션 '버버리', '구찌', '샤넬' 등의 컬렉션처럼 눈에 띄고,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체리 컬러의 빨간색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더불어 눈에 띄는 빅사이즈 리본 장식이 포인트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여름에는 다양한 색상, 스타일, 소재의 숏팬츠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며, 올해 역시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고 아이템 및 지속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브랜드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 FASHION GQ, 2024년 '서울의 남성복' 주목 (2) 글로벌 인기장 '유스', '포터리', '렉토', '시스템'



글로벌 남성 패션지 'GQ'가 2024년 꼭 시도해야 할 12가지 스타일을 제안했다. 2024년 남성복은 차분한 톤과 엄격한 스타일로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화려했던 팝 컬러를 대신해 블랙, 그레이, 브라운 톤의 제품들로 스타일링을 바꿔야 할 것이다. 24 S/S 컬렉션의 특징은 '블랙'의 부활을 꼽을 수 있다. 심지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올 블랙으로 치장한 런웨이가 소름 보였듯이 블랙 코트, 스카프, 하의류, 신발까지 블랙 컬러는 가장 기본 컬러가 될 것이다. 또 고등학교 시절 80년대를 회상하며 옥스퍼드 셔츠가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되어 다시 옷장을 채울 것 같고 예상했다. GQ는 더 이상 긴 길이의 제품은 불필요한 치장해 불과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겨울시즌 숏팬츠의 유행이 올해에도 이어지며 셔츠, 티셔츠 등의 길이가 허리 라인으로 짧아지는 대신 하이웨이스트 팬츠와 매칭이 대중적인 스타일로 주목받고, 청이 넓은 비니를 대신해 짧은 스타일의 비니 베이비가 유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GQ는 '서울의 옷(CLOTHES WITH SEOUL)'의 트렌드를 주목했다. 서울의 남성복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매력적이고 훌륭한 패션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 브랜드로 '유스(YOUTH)', '포터리(POTTERY)', '렉토(RECTO)', '시스템(SYSTEM)'을 꼽았다.

## FASHION '마시 성' 패션 3인방의 질주 (3) '마랭캥', '마리메', '마르디 메르디' 매출 1,000억원 돌파

지난해 패션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일명 '3마' 브랜드, '마랭캥', '마리메 프랑스'와 '저버', '마르디 메르디'가 1,000억원 연 매출을 돌파하며 올해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블로거 마켓으로 시작한 '마랭캥', X세대 대표 브랜드로 리얼칭에 성공한 '마리메 프랑스'와 '저버', 무신사, 29CM에서 상위권을 마크하고 글로벌까지 진출한 '마르디 메르디'는 모두 정체성과 개성있는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대, MZ세대 충성고객 확보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1,000억원 매출 규모까지 성장했다.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 성장한 '3마' 브랜드는 2021년부터 오프라인까지 확장하며 불황을 키우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마리메 프랑스'와 '저버'는 2021년 2월 더현대서울에 첫번째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고, '마랭캥'은 2022년 더현대대구에 1호점을 개장했다. 한남동 매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마르디 메르디'는 2023년 6월 롯데월드몰에 첫 백화점 플래그십스토어를 오픈했다. 이들은 젊은 감각을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유행하게 소통하고, 팬덤을 일으키는 마케팅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랭캥'은 최근 배우 공효진을 모델로 기용하고 TV CF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마르디 메르디' 역시 배우 김고운을 활용해 글로벌까지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또 '마리메 프랑스'와 '저버'는 배우 고윤정과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내셔널 브랜드인 '마랭캥'과 '마르디 메르디'는 일본, 태국,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진출에 성공하고 올해에도 대만, 태국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 TEXTILE 대구·경북 2024년 섬유수출 소폭 증가 예상 (4)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27억 달러 전망



2024년 대구·경북지역의 섬유 수출은 세계 무역의 완만한 회복과 K패션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지난 12월 대구·경북지역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경기전망 설문조사 결과, 세계 무역의 완만한 회복, 고부가 소재의 국내 생산 확대, K패션 수요 증가, 첨단 소재 수출 호조, 환율로 인한 선호 확대, 전년 실적 부진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2023년 대비 2.5% 증가한 27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섬유 수출은 전년보다 11.4% 감소한 24억 2,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은 섬유사 26.4%, 섬유직물 10.2%, 섬유제품 2.3% 감소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수출 품목인 폴리에스터 직물, 니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 23.2% 감소했다. 2023년 전체로는 전년 대비 11.5% 감소한 26억 3,4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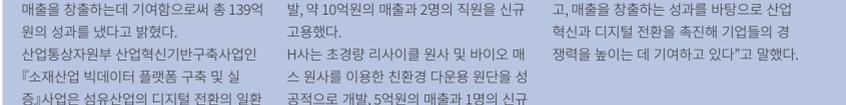
2024년에는 편직물과 폴리에스터사, 폴리에스터 직물 등의 소재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류와 섬유, 액세서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감경기에 대한 전망치도 국제정세, 유가와 환율 등의 안정화 예상, 경기회복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경북지역 섬유업체들은 2024년 기업경영안정화 요소로 신상품 출시, 신시장 개척, 품질인거획 등을 꼽았다.

## TEXTILE DYETEC연구원, 섬유소재 데이터 플랫폼 연계 기업지원 통했다 (5) 64개 기업 지원에 매출 139억원 성과 기록



DYETEC연구원(이사장 조성형)이 『소재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으로 19개 기업을 선정·지원해 매출 28억원, 신규고용 15명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원은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45개사 기업에 총 111억원의 직·간접 매출을 창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총 139억원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인 『소재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은 섬유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섬유소재 기반 소프트웨어 응용 기술 개발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DYETEC연구원은 지난 4년간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D사의 경우 공정지능화를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와 디지털 기반 섬유 제조공정을 연계하여 단연 원단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 약 10억원의 매출과 2명의 직원을 신규고용했다. H사는 조경향 리사이클 원사 및 바이오 매스 원사를 이용한 친환경 다용도 원단을 성공적으로 개발, 5억원의 매출과 1명의 신규고용 성과를 냈다. I사는 3D 디지털 물성 데이터를 활용한 잠재권속사 추출용 가공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F사는 2023년 데이터 플랫폼 연계 사업을 통해 목표한 시제품 개발 기회를 얻었다. DYETEC연구원 소재빅데이터연구센터의 최윤성 센터장은 “기업들이 3D 디지털 물성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매출을 창출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3D DIGITAL BoF, 2023 IT 테마 베스트는 'AI' (6) 생성 AI, 패션 컬렉션 · 캠페인 · 대화형 챗봇 등 프로세스 혁신



패션 비즈니스 전문지 'BoF'가 2023년 각 부문별 최고 이슈를 꼽은 가운데, IT 카테고리 최고 이슈로 'AI'를 선정했다. 지난해 연초에 ChatGPT 기술이 발표된 이후 수많은 패션이 디자인, 마케팅에 생성 AI를 사용했고 소매업체들은 대화형 챗봇을 공개했다. 현재 패션 브랜드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생성성 프로그램은 ChatGPT, 미드저니(Midjourney), 인웨이(Runway) 등으로 이를 활용해 광고 캠페인 및 콘텐츠 제작하고 있다. 패션 브랜드 '카사블랑카(Casablanca)'는 미드저니를 사용해 2023년 S/S 컬렉션을 제작했고, 스페인 브랜드 '데시구엘(Desigual)'은 AI 도구를 활용해 디자인한 주원형 컬렉션을, '콜리나 스트라다(Colina Strada)'는 2024년 S/S 컬렉션을 기획하기 위해 AI의 도움을 받았다. 또 LVMH 그룹의 '파투(Patou)'는 기술 파트너 오르데(Ordre)와 함께 새로운 AI 기반 인증 시스템을 출시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해 진품, 가품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BoF는 AI에 대한 두려움을 낙관주의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BoF VOICE 2023'에 참여한 부루넬로 코치넬리는 "AI와 같은 기술 혁신을 수용하며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인간성을 비즈니스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의 이익과 사회 환경 사이에서 균형감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AI는 우리의 파트너일 뿐이며, 우리는 진실과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3D DIGITAL 메타버스 세상에서 탑 패션 브랜드는? (7) '에더 어패럴', '더 패브릭앤티', '스니커 핏프스' 탑3 랭킹



블록체인 메거진은 메타버스가 단순한 게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가상 공간에 그치지 않고 자기 표현과 패션을 위한 장소가 될 것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해 메타버스 세상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10개의 패션 브랜드를 꼽았다. 특히 이들은 NFT 웨어러블을 수용해 메타버스에 스타일과 독창성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개의 패션 브랜드는 △에더 어패럴(Aether Apparel) △더 패브릭앤티(The Fabricant) △스니커 핏프스(Sneaker Pimps) △구찌(Gucci) △프라다(Prada) △오피 화이트(Off White) △발렌시아가(Balenciaga) △베이비(BABE) △디지털엑스(DigitalX) △VR가든스(VR Gardens)다. '에더 어패럴'은 메타버스에서 패션과 집단 기쁨을 결합한 NFT 웨어러블을 제공하여 세련되고 기능적인 가상 옷장을 만들고, '더 패브릭앤티'는 완전한 가상 의류 컬렉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디지털 패션 하우스다. '스니커 핏프스'는 NFT 웨어러블을 통해 메타버스에 진출했으며, '구찌'는 디지털 스니커즈와 패션 액세서리 등 가상 패션 아이템을, '프라다'는 메타버스 마니어를 위한 아방가르드한 디지털 패션을 선보였다. '오피 화이트' 역시 도시적인 감각의 NFT 웨어러블을, '발렌시아가'는 하이패션과 디지털 아트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한정판 NFT 웨어러블을 출시했다. '디지털엑스'는 아티스트 및 디자이너와 협력해 NFT 웨어러블을 제작하는 블록체인 기반 패션 플랫폼이며, 'VR가든스'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디지털 웨어러블을 결합한 혁신적인 메타버스 패션 브랜드로 꼽혔다.

## 가시 및 사진 출처

(1) BBC, 2024년 유행할 패션 트렌드는?, 23년 12월 29일  
(2) GQ, Men's Fashion Trends 2024, 23년 12월 29일  
(3) 한국경제, '3마'가 대세 될까, 23년 12월 25일 / 매일경제, 요즘 2030들 '3마' 모르면 건전, 23년 12월 29일  
(4) 뉴스속, 대구 경북 2024년 섬유수출 소폭 증가 예상, 23년 12월 28일  
(5) 전자신문, 다이텍연구원, 섬유소재 데이터 플랫폼 연계 기업지원으로 매출 139억원 성과, 23년 12월 26일  
(6) BoF, The Best of BoF 2023, The AI Revolution, 23년 12월 30일  
(7) 블록체인 메거진, What Are NFT Wearables: Top 10 Fashion Brands for the Metaverse, 23년 12월 18일

문의 : 다이텍연구원 소재빅데이터연구센터  
Tel : 053-350-3734, 3743 Email : fabricdive@dyetec.or.kr

JOIN US